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인터뷰

# “당 계파갈등 가치논쟁 통해 해결”

야당이 바로서야 국가 제대로 서  
박정희식 모델 탈피 시장 주도 모델 나와야  
문재인 정부 경제·안보분야 부정적  
원 포인트 개헌 바람직·전대 안나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가진 광주 일부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9개 신문사와 공동인터뷰에서 자신감과 역동성을 드러내 보였다. 눈이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비교적 까다로운 질문에도 주저하지 않고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요약.  
-자신감이 느껴진다. 비대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고사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어떤 이유로 맡았는지 궁금하다.

▲자신감이 아니라기보다는 일종의 책무다. 잘못된 세상에 제 책임이 어디 한 구석에 있을 것이다. 그에 앞서 세상을 쳐다보면 답답해서 못견디겠다. 당신이 이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 확신은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냥 있을 수 없다. 야당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국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비대위원장 20여일을 하면서 소회는.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커졌다. 우리에게 '박정희 성장모델' 이후에 성장모델이 없었다. 보수는 박정희시대 업적을 갖고 기득권만 누렸고, 진보는 거기에 저항했지만 진보 나름의 성장모델은 없었다. 지금의 성장모델은 남의 것을 수입해서 쓴 것이다. 임금 주도성장을 갖고 와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쓰고 있다.

새로운 성장모델이 나와야 한다. 박정희식 모델에서 탈피해 시민사회와 시장이 주도하는 자율성장모델이 나와야 한다. 탈국가주의 모델이다. 이 이야기를 던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받는다. 당내 의원들이 수긍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붙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경제분야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소득주도성장은 우리와 안 맞는다. 내수 중심 경제일 때는 가능하지만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수출경쟁력만 떨어질 수 있다. 우리 자영업자 수는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다.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업자가 쪼야 한다. 소상공인한테 임금을 올려 주라고 하니 말이 되나. 우리 고용구조에 맞지 않는다.

외교안보도 잘못됐다. 평화를 이루는 두 개의 축이 있다. 하나는 대화·타협·협상이라는 축과 또 하나는 국방력과 공동 제재 등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한 쪽축만 강조하는 것 같다.

-비대위원장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21대 총선 공천권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당헌·당규에 명시돼 있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다음 전대까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음 전대 시기는 비대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비대위가 끝까지 갈 수는 없다. 가봐야 내년 2월~3월 정도다. 그때쯤이면 공천권이 없다. 다만,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은 있다. 공천권이 있다 한들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공천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공천제도를 다음 당대표가 역류시키지 못하도록, 국민이 지지하고 이해하는 공천제를 만들어야 한다.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어려운 일이다. 개헌은 판도라의 상자다. 권력문제 등부터 (논란거리가) 너무 많다. 전문에 무엇을 넣을지를 두고 정치권이 틀어진다. 개헌을 한다면 원포인트 개헌, 권력구조만 한다면, 한 두 가지 만 갖고 개헌을 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 문제에 대한 생각은.

▲세계에서 교육과 일반행정을 분리한 곳은 미국 정도다. 궁극적으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결합해야 한다. 결합하면 직선제가 필요한지 의문이다.

-기초단체장 공천 폐지에 대한 생각은.

▲정당은 선거를 하는 조직인데 선거에 관여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된다. 정당공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지역주의 때문이다. 공천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문화가 잘못돼 있어서 그렇다. 정치문화를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다.

-지방분권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 지방에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 물론 분권이 이뤄지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선분권 후보완' 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만 놔두면 자율정화 시스템이 발생한다. 중앙집권체제나 지방분권체제의 정당은 없다.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른다. 답이 없으면 권력을 주던 가까이 돌려주는 지방분권체제로 가야 한다.

-우리의 정당구조로 양당제가 나오지 다당제가 나오지.

▲유럽식 다당제, 서모가 연정하는 그런 체제가 안정적이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중심제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당제 만들 여부가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개편되면 우리 정치가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기존 구도 속에서는 어렵다. 대통령 권한 약화되면서 중대선거구제 되면 좋을 것이다 -한국당의 제일 큰 문제가 계파갈등이다. 지금 분위기는.

▲사라졌다고 하면 틀린 답일 것이고 잠잠해졌을 것이다. 계파를 없애는 것은 힘들다. 가치논쟁을 통해 통합해야 한다. 또 공천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계파가 없어지거나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직접 전담대회 뛰어들 생각은.

▲없다. 하루에 열두번씩 마음을 먹고 있다. 그래야 제가 하는 일에 오해가 없다.

-추대를 해도 안 나설 것인가.

▲그래도 안 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형일자리 협상에 노동계 참여 추진

광주시, 현대차와 합작법인 설립 한국노총 등 반발 해소 모색

광주시가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현대자동차와의 협상체계를 8월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노동계를 협상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선 7기 구축된 노사민정에서 노동계가 이탈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면서 '자동차 업계 임금 절반+교육·의료 등 복지 제공'을 통해 일자리 1만5000개를 창출한다는 시의 구상이 저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한국노총이 최근 공문을 보내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을 서면으로 공개하고 협상 과정에 노동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을 광주형 일자리가 아닌 '기업 비위 맞추기'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협상 과정을 파악하고 있는 한국노총 내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임금 수준 향상, 노조 경영 참여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이에 따라 조만간 내부 협의를

거쳐 협상에 한국노총을 참여시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협상단에 포함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예정된 협상 내용을 미리 전달해 의견을 받고 협상이 끝나면 이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논의가 끝나면 공문으로 답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와 현대차와의 협상이 8월 내 타결 가능성도 있지만, 다소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 등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은 '재벌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임금 구조인 자동차 업계에 광주형 일자리가 미칠 영향을 감안한 것이라고 시는 파악하고 있다.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을 최대 당면과제로 추진중인 문재인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한 바 있

다. 최근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시는 협상체와의 협약을 통해 새로 설립할 자동차 공장에는 자본금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모두 7000억원이 투입된다. 시가 자기자본금의 21%인 590억원을, 현대차가 530억원(19%)을 각각 투자한다. 나머지는 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시는 신설법인이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고자 직접 투자 대신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자본금을 우회 투자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제도 정비도 마쳤다.

생산 차종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결정됐다. 시는 10만대 생산규모의 공장을 설립하면 간접고용을 포함해 모두 1만 5000여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인사전행·회계문란’ 광주디자인센터 원장 직위해제

8월중 이사회 최종 심의 계획

민선 7기 들어 첫 인사 조치

광주시는 12일 지난 9일자로 회계질서 문란, 인사전행 등 각종 비위로 불의를 일으킨 박용복 광주디자인센터 원장을 전격 직위해제했다. 민선 7기 들어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첫 인사 조치다.

이용섭 시장은 올해 내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임기 보장을, 내년 이후까지 임기가 남은 기관장은 각종 평가와 민선 7기 방향성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임기 보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디자인센터 내부 비위가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면서 '정령'을 강조해

은 이 시장이 박 원장의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디자인센터 비위 제보와 관련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달 31일 센터에 통보한 바 있다. 시 감사위원회는 원장에 대해 ▲회계질서 문란 ▲원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 ▲전보인사 부적절한 운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중징계는 이사회를 거쳐 최고 해임까지 가능하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은 공용물품을 사비로 구입한 후 보전받기 위해 2차례 민간업체와 짜고 사업비를 부풀리도록 부당 지시한 바 있다. 한 업체는 부풀린 사업비에 대한 지급을 거

절함으로써 수행하지 않은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다른 업체로부터는 부풀린 사업비 200만원을 돌려받기도 했다. 그 결과 계약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센터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공용차량을 전용차량처럼 지속적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출·퇴근, 주말·공휴일 등에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부당사용 일수는 무려 531일에 달하며, 하이패스도 95차례나 이용했다.

디자인센터는 시의 원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로 8월 중 이사회에서 심의할 계획이고 시도 이사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5급 이하 606명 전보인사

광주시는 13일자로 5급 이하 60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7월 23일 하반기 승진 의결, 7월 25일 4급 이상 전보인사에 이어 민선 7기 진용 구축을 마무리했다.

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직원들이 인사격정없이 자기 업무에 애정과 자긍심을 갖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희망인사시스템에 의한 전보

희망 신장'과 '시장 인사 핫라인'의 인사고충 등을 반영했다.

이번 인사는 희망인사시스템에 의한 전보희망 신장 존중, 1년 이하 근무자 전보 제한, 2년 6개월 이상 근무자 업무순환 등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또, 보직경로제를 토대로 6급 이하 필수보직기간(1년6월)을 준수하면서 조직개편, 업무능력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전보를 허

용했다

5급 담당급은 업무역량과 성과 등 업무 적합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6급 이하 하는 개인희망부서, 부서추천, 인사고충 등을 반영한 인원이 희망하는 부서 배치로 자기업무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13일 승진·전보 대상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고 신속히 인계인수 과정을 거쳐 좋은 일자리 창출, 2019년 국비 확보, 인사·조직·문화 혁신 등 현안문제 해결에 주력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선배.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동배.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배.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배.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TWIN STEEL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